



女行

여자 여행

Issue
No.2

지금여기,
오사카골목길
오사카편



지금 여기, 오사카 골목길

OSAKA

2박 3일



1일차
이치쵸지



2일차
키타하마



3일차
가라호리

1
일
차



* 이치조지 역

9월의 첫째날,
교토시의 이치조지라는 마을에 도착했다.

이번 여행은 골목여행이라는 타이틀로 떠나왔는데
마치 이 타이틀에 대답이라도 해주듯
멋진 골목풍경이 펼쳐진 곳이었다.

하늘은 맑고, 햇별은 강렬하다.





케이분샤
惠文社

영국 가디언지에서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서점에 Best 10에 이름을 올렸던 교토 이치조지 거리에 있는 <케이분샤 이치조지 점>

이곳 케이분샤는 교토 변두리에 위치한 감성 가득한 느낌의 서점이다.

마치 유럽에나 있을 법한 카페같은 외관을 띄고 있었으나 안으로 들어가 보니 주인장의 고집을 느낄 수 있는 책들이 많이 진열되어 있었다. 서재를 연상시키는 내부 인테리어 때문인지 2시간 3

시간 시간 가는줄 모르게 서점을 구경했다. 케이분샤는 책 뿐만 아니라 다양한 소품들과 전시도 진행되고 있으니 함께 둘러보면 좋겠다.

이곳을 오기위해
멀고 먼 교토까지
정신없이 왔나보다.



| 케이분샤 이치조지점 | 교토시 사쿄구 이치조지 하라이 토노초 10 <이치조지 역 하차 > 하차한 방향으로 직진(도보3분)



タイモントモ系

pan
hochi
here

P



케이분샤로 나와 다시 전철역을 기준으로
반대방향으로 건너가면 관광객의 발길이 닿아있지 않은
작은 마을을 만날 수 있다.
한참을 걷다보니 드넓은 논이 펼쳐져 있었고
<함께 만드는 안전한 마을>이라는
기분 좋은 현수막이 곳곳에 걸려 있었다.

みんなでつくる安全なまち

화려하고 볼거리가 많은 관광지는 아니지만
소소하고 그들의 생활을 엿볼수 있는 그런 마을이었기에
언젠가 또 다시 들러 산책하고 싶은 곳이다.





일본여행을 하다보면
일본은 우리나라와 비슷한점이 많기도 하지만
극명히 다른점을 느끼는 부분도 있다.

그 중 하나는 옛날방식을
오랫동안 지켜내 나가고 있다는 점이다.
그들의 삶의 방식들을 오래두고 두어서
본인들만의 방식으로 만들어버린다.

그들은 시간의 미학을 잘 알고있는 듯하다.



2 일차



* 기타하마

기타하마는 마치 도쿄의 요코하마를 떠올리게 하는 곳이다. 큰 강을 사이에 두고 한쪽에는 강을 바라보며 커피를 마실수 있는 카페와 레스토랑이 즐비해 있고 반대쪽은 산책할수 있는 공원에서 사람들이 스케이트보드를 타거나 춤을 추거나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날씨만 좋다면 그야말로 유럽에 온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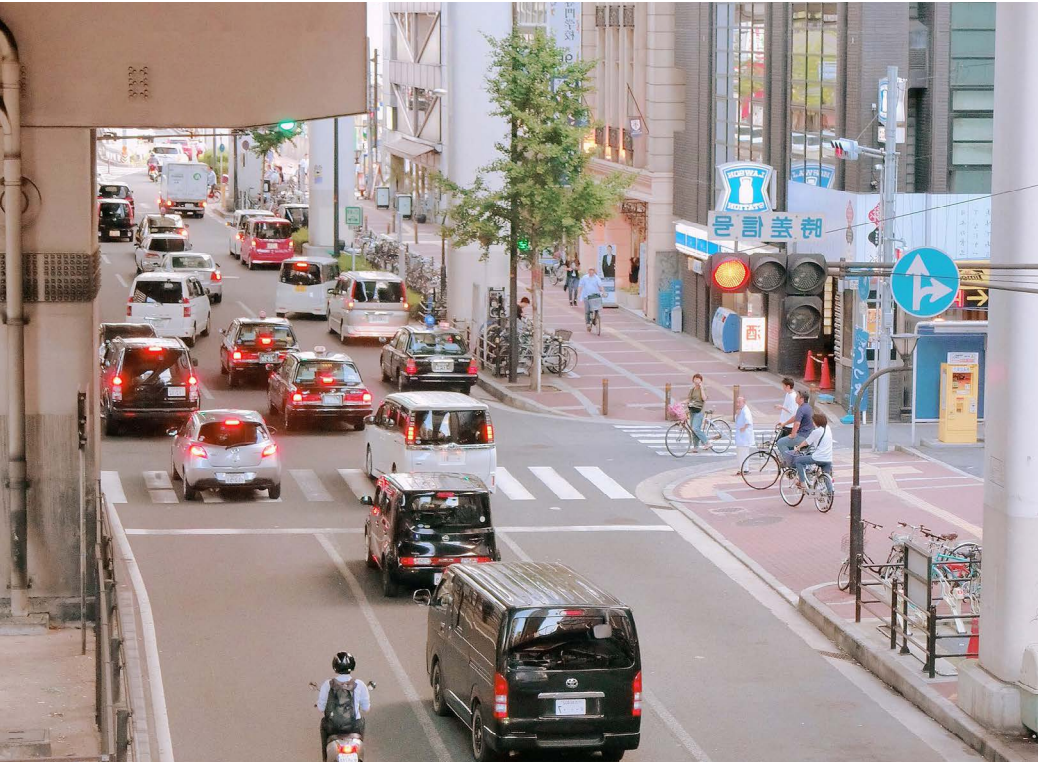
어쩌면 지극히 평범한 풍경이었다.

평범한 육교였고 평범한 강이었고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건물들이었다.

여행자에게 있어 이런 풍경들이
특별하게 다가오는 건
평범한 일상에 지쳐 떠나온 이 여행이
특별해지길 바래서 일지도 모른다.

자꾸만 카메라를
꺼내고 싶은
풍경이 있다





우메다
梅田

기타하마에서 무작정 걸었다.
이리저리 골목을 들쭉시며 들여다보고,
명하니 서서 한 곳을 주시하거나 하는 행동들에
나는 자칫 수상한 사람같아 보였을 것이다.

이곳이 어딘지 알 수 없었지만
안다고 해도 어차피 모르는 길이었다.
오랜만에 뻑뻑한 스케줄이 짜여진 여행이 아니라
혼자서 타국을 걷는 여유를 맛본 하루였음을 느꼈다.
걸다가 조금 지쳐갈때 쯤 눈앞에 보이는 “아는 길”
아는 길이 이렇게나 반가운 일이었던가.

아! 우메다다!



일상

그동안의 일본여행에서의 숙소는 에어비앤비를 이용하거나 호텔을 이용하거나 했는데 이번 여행은 오사카에 사는 친구 집에서 며칠 신세를 지게 되었다. 그래서인지 여행의 기분보다는 이곳에 살고 있는 느낌을 더 받았다. 저녁밥으로 친구가 만들어 준 카레를 먹거나 밤 늦게까지 영업하는 동네의 밥집에 가거나 했다.

평범하게 저물어 가는 하루였지만 내겐 결코 평범하지 않은 하루였다.

3
일
차



* 가라호리

제 2차 세계대전 당시 피해를 보지 않은
가라호리는 전철역에서 나와 살짝 고개를 돌리면
마치 일본 애니메이션에서나 볼 수 있을것 같은
풍경들이 펼쳐진다.

마치 소품가게 마냥 집 앞에 주전자나 화분들이 나와있고,
그것들이 자아내는 동화적인 분위기는
가라호리,
이곳에서 밖에 볼 수 없는 풍경이다.





내가
저기를
가면
하울이
떠날
것만
같아

| 가라호리 | 나가호리 츠루미료쿠치선 > 마쓰야마지역 > N17에서 하차한 후 3번 출구

다섯 발자국. 조용한 주택가에 들어오면 수많은 목조주택과
점포들이 줄지어 서있다.
마치 일부러 이렇게 전시라도 해놓은 것만 같다.
들어서는 입구에는 자전거를 대여소가 있으니
자전거를 타며 돌아다녀도 좋겠다.

골목골목마다 일본스러움이 가득해서인지
이곳에서는 사람도 풍경이 된다.





여섯 발자국.

에
모
지
紙
文
字

주말이라서 그런지 상점가들이 거의 휴일이였다.
그런데 저 멀리 작은 상점 한곳에 불이 켜있었다.

〈에모지〉라고 불리우는 이곳은
종이를 직접 골라 나만의 수첩이나 다이어리 등을
만드는 종이 잡화점이였다.
슬그머니 문을 열었다.

곤니치와





絵

안으로 들어가니 조용한 목소리의 한남자가 반겨주었다.
이랏샤이마세~

그냥 구경만 하러 간것 뿐이었는데
종이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주인장과 짧은 이야기를 나누다보니
저 남자에게 수첩 하나를 부탁하고 싶어졌다.

작은 수첩하나를 만드는데에도 아주 조용했다.
마음의 안정이 찾아오는 가게이다.





3일의 여행이 끝나갈때 즈음
조용한 카페에 앉아 이번의 짧은여행을
담은 카메라를 하나하나 확인해보았다.

3일 동안 내가 본 오사카의 풍경은
화려하고 맛집이 가득한 오사카가 아닌

조용하고 소박하게 살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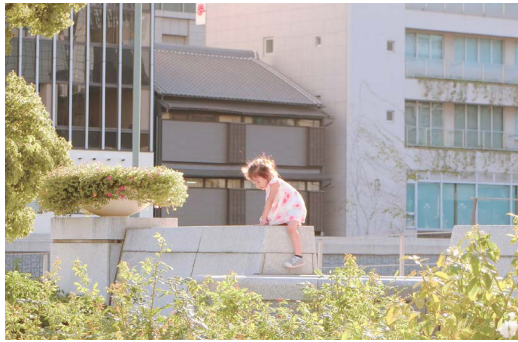
일본을 천천히 걸어 보았어.

BEHIND

비하인드

Behind.1

혼자서 기타하마를 유유히 산책하던 중 저 멀리서 다리에 기대어 놀고 있는 아이는 마치 한장의 화보같았다. 아이의 부모님이 옆에 계셔서 가까이 가서 사진을 찍을수 없었지만 꼭 카메라에 담고 싶어서 멀리서나마 아이를 카메라에 담을 수 있었다.



Behind.2

기타하마 나카노시마 공원에는 주말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을 나온다. 햇살이 좋고 살랑이는 바람때문인지 이곳이 일본인지 유럽인지 헷갈리는 풍경들이었다.



Behind.3

이치조지역 선로 뒷쪽으로 가면 나오는 마을에서는 그 시간 하교하는 학생들이 많았다. 우르르 몰려다니는 소학교 아이들을 비롯해서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재잘재잘 수다를 떨며 하교 중이었다. 타국에 있으면 이런 모습들조차 신기하게 느껴지는 것은 왜일까?



Behind.4

이치조지에서 한참을 산책하다가 배가 고파서 빵을 사들고 마을의 조그만 공원으로 향했다. 벤치들만 줄지어 선 이 공원에서 빵을 먹고 있었는데 옆 벤치에서 신문을 읽고 계신 할머니를 만났다. 할머니는 신문을, 나는 빵을. 평화로운 시간이다.



大阪
오사카

집으로 돌아갈까?
저녁냄새가 나는 곳으로